

##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뜻깊은 기념사진앞에서 선듯 말걸음을 떼지 못한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사진은 자신께서 제일 아끼던 사진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신것은 항일의 나날 남야영에 머무르실 때이다. 남야영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항일련군 1로군산하의 부대들이 초기에 사용한 위로처로 브근방의 텁시기지이다. 남야영을 B야영이라고도 불렀다.

수령님께서는 내가 일생에서 개별적으로 너전우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그것이 처음일것이라고, 나와 김정숙에게 있어서는 결혼사진이나 다른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 봄을 영원히 기념하고 싶어 사진뒤면에 『타왕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야영구에서』라는 글을 써놓았다고 그때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타향의 봄날 불멸의 화폭에 비친 백두산장군들의 그 미소는 항일투사들과 짓밟힌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에 대한 신념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안겨준 희망의 불빛이였다.

그 봄빛과 더불어 이 땅에 조국해방의 새봄이 왔고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조국이 일떠섰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관하는 결전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께서 지으신 환한 미소는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는듯싶다. 승리에 대한 신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어린 그 타향의 봄빛이 통일강성국가의 새봄빛으로 이어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 오늘도 빛나는 그날의 환호성

— 개선문 광장에서 —

조국해방 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신 그 날의 이야기를 길이 전하는 평양의 개선문광장은 요즘 수많은 각계층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얼마 전 우리 가 그곳을 찾았을 때였다.

『저기 보이는 김일성경기장이 바로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신 공설운동장자리입니다.』

개선문앞에 선 김정숙강사가 참관자들에게 그날의 사연에 대해 해설해주고 있었다.

강사는 일찍이 14살 어려신 나들이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지경을 넘으시여 장장 20성상 조국해방을 위하여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수령님을 봤고 싶어 공설운동장은 물론 운치좋은 주변의 나루파기들에서도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고 고색창연한 울림대며 최승대쪽에도 환영군중으로 하얗게 덮여있었다고 했다.

해방의 환희가 물결쳐오르던 10월 14일 오후 1시, 온 겨레가 그처럼 흠토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 시며 절세의 애국자 이신 김일성장군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의 찬란한 미래와 기상이 비껴있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리르며 군중들은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수 있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유격전법들을 창조하시였다.

총군 한면 특집하

**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 업적**

이 신묘한 전법들로 항일유격대는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대체적 무장장비를 갖춘 일체의 100만판동군을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 신문은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유격전법의 승리라고 할

한 지략은 1937년 6월에 있던 지력을 통해 전투를 통해서도 반드시 민족적 독립파 해방을 이루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한 것이였다.

비범하고 신묘한 전법으로 항일대전의 수많은 전투마다에서 련승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치마침내 일제를 격멸하고 조선해방의 혁신적인 혁명의 힘으로 그 다음과 같이

조조하였다.

지도에서 마저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태오

는 보천보의 불길은 삽시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았으며 싸우면

한 유격전법을 창조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전설적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의 령활무쌍

한 유격전법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

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

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유

격전법들을 창조하시였다.

총군 한면 특집하

**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 업적**

이 신묘한 전법들로 항일

유격대는 국가적후방도 정규

군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대체적 무장장비를 갖춘 일체

의 100만판동군을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

신문은 김일성주석의 탁월

한 유격전법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

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

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유

격전법들을 창조하였다.

지도에서 마저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태오

는 보천보의 불길은 삽시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았으며 싸우면

한 유격전법을 창조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전설적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의 령활무쌍

한 유격전법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

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

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유

격전법들을 창조하였다.

지도에서 마저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태오

는 보천보의 불길은 삽시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았으며 싸우면

한 유격전법을 창조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전설적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의 령활무쌍

한 유격전법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

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

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유

격전법들을 창조하였다.

지도에서 마저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태오

는 보천보의 불길은 삽시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았으며 싸우면

한 유격전법을 창조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전설적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의 령활무쌍

한 유격전법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

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

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유

격전법들을 창조하였다.

지도에서 마저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태오

는 보천보의 불길은 삽시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았으며 싸우면

한 유격전법을 창조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전설적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의 령활무쌍

한 유격전법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

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5성상의 항

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유

격전법들을 창조하였다.

지도에서 마저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태오

#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강령적지침

오늘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을 비롯한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고 있으며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 보려고 위험한 대결정책과 북침불장난소동에 더욱 악랄하게 벌여달리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3대현장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현장은 불멸의 자주통일 대강이다.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법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익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보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서 여기에는 조국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두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

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현장이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에 가 담겨져 있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조건과 우리 거례의 한결 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강령이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조국통일3대현장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우리 거례의 자주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찰하여 나라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간고한 투쟁에서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이 투철한 자주의식으로 훤히 무장하고 자주권 실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다면

미국은 백수십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뺐쳐왔고 오늘도 우리 거례에게 헤아릴수 없는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그런데 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한미판권우선론』을 떠들며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송두리채 써겨바치는 매국반역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침략적인 외세와의 공조에 혈안이 되어 미국의 대

# 겨례의 자주의식을 높여주는 고귀한 명언

세를 심기고 그에 의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한 데를 알지 못한다.

조선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해나

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거례로 하여금 민족자주의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사대에 국제의 외세의존, 동족대결책 등을 철저히 짓부서버릴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족자주에 나라의 통일과 민족적통성번영의 길이 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당국의 길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우리 거례의 자주의식을 높여주고 온 민족을 자주통일위업수행에 떨쳐나서게 하는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온 거례는 경애하는 장군님이 이 명언을 삼장길이 간직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자주통일위업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 시간을 다투는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조치에 들어갔다. 남조선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밖에 됐다.

지난 기간 공화국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를 바 『3대조선』을 계속 운운하며 2009년 8월 현대그룹회장에게 공화국이 최고수준에서 준 담보도 무시하였으며 지난해 2월에 진행된 판광재개 회담도 파탄시켰다.

이렇듯 북측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이 3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공화국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체택한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공화국은 금강산국제관광특

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부동산정리를 위해 남측 당사자들이 금강산에 들어와 기업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회망에 따라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재산을 임대, 양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접촉들에서 기업대표들이 금강산에 들어가는 것을 고의적으로 가로막고 그들이 북측대표들과 만나는 것조차 막아나서는 횡포를 저지른으로써 결국 회담에서 아무리 한 성과도 거둘 수 없게 하였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말도 되지 않는 『특구법 철회』니, 『남북합의원반』이니, 『제40회 철회』니 하며 저들의 부당한 행위를 고집하였지만 남조선의 현대아산사장일행이 10일 금강산을 방문하여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는 진지한 협의를 가지였다.

앞으로 법적 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남조선당국은 남측의 기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권시옥

## 『민족 21』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통일언론활동을 벌여온 『민족 21』에 대한 정보원의 파쇼적 탄압이 매일같이 벌어져 거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족 21』의 편집주간, 편집국장의 징이 강제수색당하고 잡지사의 사무실이 빼주에 수색당하는가 하면 『민족 21』 간부들이 출출이 정보원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고 있다. 지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쓰는 취재용 펌프티, 기억기를 비롯한 취재, 편집도구들도 빼앗아가는 횡포한짓도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 지난 시기 10년간에 걸쳐 기사교류를 하며 함께 『민족 21』을 만들어온 협력대상자들이 한순간에 『북의 지평』을 받았던 후에 『간첩활동』으로 뇌로 되고 북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족 21』의 활동이 어떻게 『간첩활동』으로 되고 북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민족 21』은 남조선의 보수세력이 말하는 그 무슨 『친북집권』이 아니라 북의 실상을 하나

라도 더 객관적으로 남쪽사회에 알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세 노력해온 통일언론지이다. 이로부터 『민족 21』은 지난 10년간 북의 『통일신보』와 기사교류와 관련한 합의서도 체결하고 북에 대한 취재 등 협력활동을 활발히 벌려왔다. 이 잡지사의 기자, 편집원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활동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활동을 말살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해왔다. 북에 대한 취재의 길도 이구설구지 살펴가기로 막았고 지난 『정부』 시기부터 『민족 21』에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도 차단하여 잡지사를 재정적으로 압박하였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북남관계 폐쇄속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통일신보』를 떠들며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송두리채 써겨바치는 매국반역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침략적인 외세와의 상적독소이다. 력사는 아직 외

반통일행위이고 북남관계를 더욱 폐쇄에 몰아가려는 단말마적발악이라고밖에 달리할 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는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 북의 언론사와 교류와 협력을 하며 북을 방문하여 취재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은 유독 『민족 21』뿐이다. 북과 남이 서로의 불신을 가지고 협력하자면 언론이 앞장서야 하며 그래서 『민족 21』의 활동은 남조선의 각계총속에서 높이 찬양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언론마저 입에 자갈을 물리고 북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 북과의 언론교류는 어떻게 하고 래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남측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거례의 분노를 끼우며 『민족 21』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거례의 통일열망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우리는 『민족 21』과 어깨를 걸고 통일언론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활발히 벌려나갈 것이다.

『통일신보』 편집국일동

## 이제 말로를 반통일 <정권>의 보여줘야 할 때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넷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글이 올라 주목을 끌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15가 다가오고 있습니

다. 2000년에 8.15는 남측 통일운동진영이 나라의 자주, 평화, 통일을 넘원하며 하나님께 어우러짐을 만들어내는 큰 대동한마당의 장이 되었습니다.

작렬하는 태양과 쓸어놓는 폭우를 헤쳐온 통일선봉대의 자랑찬 기발이 8월 하늘을 수놓고, 전국의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어이 우리 대에 조국통일 이루자』며 노래하면서 그 단결의 날, 투쟁의 날, 통일의 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6.15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희망표를 따

라 우려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하나가 되고자 했으며 민간통일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토록 통일에 대한 널원과 확신이 가득했던 8.15광장, 이제는 마치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친북정책』은 단결과 실천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는 통일에 대한 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8.15광장! 반통일세력은 숨죽이고, 바라보는 8.15광장을 만들어냅니다.

1.500만 로동자, 7천만계층의 널원을 담아 현 『정부』를 심판하고 기어이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 21』 관계자들에 대한 탄압만행은 이 잡지사와 오랜 기간 기사교류를 진행해온 우리 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공안당국은 『민족 21』 관계자들이 일본에 있는 총련의 일군들과 만난 것을 가지고 터무니없게도 『북의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것처럼 날조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통일신보』 편집국의 전체 성원들은 치미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민족 21』은 남조선의 보수세력이 말하는 그 무슨 『친북집권』이 아니라 북의 실상을 하나

이뿐이 아니다. 북의 인사들과 접촉한 남조선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있고 언론인, 경제인, 종교인들도 있으며 동자, 농민, 예술인 등이 『대통령』을 도 있다. 정보원의 토론대로라면 이들도 『접선』하고 『간첩활동』을 한 사람들이 된다.

사진을 꾸며도 비슷하게 꾸며지자 이런 황당한 룰리로 민심을 기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족 21』의 탄압은 오늘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이미 오래전 『정권』을 쥐기 전에는 『조, 중, 동』과 같은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의

일본에서 총련간부를 만난 것이 『간첩활동』이라면 그들이 『간첩』으로 뇌로 되고 북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간첩활동』을 한 사람들이 된다.

『민족 21』에 대한 남조선은 『간첩』과 『간첩활동』을 하면서 『간첩』을 하면서 『간첩활동』을 하면서 『간첩』을 하는 것이다. 『민족 21』은 6.15공동선언이 10.4선언을 전면부정해온 『정권』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이뿐만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 『민족 21』 탄압은 6.15에 대한 칼부림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 21』에 대한 살벌한 탄압은 단지 한 번에 한 탄압을 넘어 통일을 바라는 온 거례에 대한 도전이고 6.15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통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 것처럼 『민족 21』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10.4선언이 3월에 창간된 통일언론이다.

잡지의 표지에도 써여 있는 것처럼 『민족 21』은 세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평화번영으로 이끌어내는 『민족 21』이 6.15를 칼질하는 것이다.

통일언론에 대한 탄압은 북남관계 개선과 함께 자그마한 의지라도 있다면 거례의 통일열기에서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범죄적인 통일언론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하나가 되고자 했으며 민간통일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단결의 날, 투쟁의 날, 통일의 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좌초시킨 모든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개혁랑심세력이 모이는

장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도 자기의 글에서 통일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건 사람은 결국 『통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의 진보

현대 상임교문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조국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현 『정부』가 대미의존, 『한미공조』, 남북대결정책을 일관되게 바꾸고 『비핵, 개방, 3.000』과 『핵개발회의 참여』 등이야말로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며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리명박 『정부』』에 『8.15, 10.4로 이어진 통일의 흐름을 부정하고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며 이번 8.15행사를 통해 대세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리명박 『정부』를 단호히 심판

이다.』고 하면서 『리명박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비핵, 개방, 3.000』과 『핵개발회의 참여』 등이야말로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며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리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집회와 시위들을 전개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민



공화국에서 파수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파수원들이 강원도의 고산령, 함경남도의 북청지구에까지 펼쳐졌다. 이제는 파수농장들에서 종래의 다크발들과 사파나무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산등성이가 아니라 드넓은 벌에 사파나무들이 펼쳐 맞추어 끝에 정렬해 있으니 회한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사파나무도 키운은 나무가 아니라 가지마다 사파가 촘촘히 달리는 키낮은 나무로 종자가 개량되었다.

일하기도 험해졌다. 산등성이에 거름진을 지고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평지에서 나무를 가꾼다. 산뜻한 작업복을 입은 농장원이 소형 브락트를 몰고나니며 고속 미립분무기로 비료와 농약을 압착처럼 분무해주고 고랑식 판수체계와 방울식판수체계가 도입되어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보장해준다.

사파기도 험해졌다. 그 전에는 사파나무의 키가 커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열매를 따냈지만 이제는 서서 사파를 따고 자동차들이 사파를 실어내가게 되었다.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 파수원의 새 모습

20세기에 공화국에서는 사파밭이 있는 곳을 사파동산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파수원의 모습이 달라지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사파별로 표현을 고쳐 불러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사파별, 이 말이야말로 파수의 새 시대에 대한 생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제는 온 나라 곳곳의 파수농장들이 옛 모습을 톡톡 털며 멋쟁이 파수농장으로 변모되었으나 오늘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현대적인 대동강파일 종합가공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파일 생산기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일신하였다.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가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본 외국의 파수업 기술자는 파수업이 최대로 발전했다는 자기 나라에도 이렇게 크고 훌륭한 파수원은 없다. 아시아의 등대와 같은 대규모파수농장을 돌아보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열마나 인민을 위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파일생산기지—대동강과수종합농장

##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전망성 있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김일룡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과 나눈 대담

기자: 얼마전 조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증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 확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그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김일룡: 라선경제 무역지대 조증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 확공식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께서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여 전통적인 조증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널리 알려진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전망성 있는 경제무역개발지대인 중국의 동북3성, 루시아의 원동지방, 몽골, 일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수억명이며 면적은 916만 8,000km<sup>2</sup>에 달한다. 이 지역 나라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교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선경제 무역지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중국, 루시아가 런경되어 있으며 조선동해를 끼고 있어 동북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 중심지로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유리한 조건과 같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라선경제 무역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며 조증 두 나라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세계경제발전에도 긍정적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자: 라선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무역지대로서의 유리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었으면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동북



만수대지구 살림집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 초음파추출기술로 고려약엑스 생산

최근 초음파추출기술이 고려약엑스 생산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초음파추출기술은 약재와 용매의 혼합액에 초음파를 작용시켜 공통, 진동, 확산 등의 효과로 약재의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용매속에 분쇄 또는 절단

빨리 추출되게 된다.

초음파추출기술을 이용하면 추출시간이 매우 짧고 저온률이 높다. 다음으로 에네르기소비가 전통적인 방법들에 비해 50%정도 적다. 초음파추출설비는 고주파발진기와 전동자,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기자

생각하시였고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시려 철쭉꽃 피는 철령을 넘나드시면서도 사색을 이어가시였다. 선군의 길에서 무르익히신 구상이 바로 야산들에 전개된 종래의 파수원들을 대답하게 평지에 옮기고 생산도 가능도 일체화된 현대적인 파수종합농장을 일떠세우는 것이었다.

그이의 뜻깊은 말씀은 이 땅에 오곡뿐 아니라 백과도 주렁지는 강성국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가슴벅차게 알리는 임상한 선언이었다.

본사기자 박금일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인민들에게 먹이자고 하시며 그이께서 바치신 현신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인가.

얼마전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파수농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너성지배인에게 잘살수 있다고, 사파도 마음껏 먹고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꼭 잘살수 있다고 앞날에 대한 확신이 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의 뜻깊은 말씀은 이 땅에 오곡뿐 아니라 백과도 주렁지는 강성국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가슴벅차게 알리는 임상한 선언이었다.

본사기자 박금일

##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 로씨야에서 개막

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 쇠아련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과 군중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전람총국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우리나라 기발파로 보여온 로씨야문화상의 축하편지가 전달되었다.

편지는 존경하는 김정일 성주석의 초상화와 함께 로씨야문화상의 축하편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로씨야의 무성, 문화성, 국제과학기술보전센터, 조선민주주의

두나라는 여러 계기들에 다양한 행사들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람회는 조선친선협조관체가 공고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중명준다.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이어 로씨야국제과학기술총

보전센터 소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뜻깊은 기념일을 맞으며 셀лер에서 조선의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를 드리워져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전람회 앞으로 보여온 로씨야문화상의 축하편지가 전달되었다.

편지는 존경하는 김정일 성주석의 초상화와 함께 로씨야문화상의 축하편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로씨야의 무성, 문화성, 국제과학기술보전센터, 조선민주주의

본사기자

## 도서기증식 도이췰란드에서 진행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7월 22일 도이췰란드의 에르푸르트시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에는 도이췰란드공산당 튜링엔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

주당 위원장 토스텐 쇠비츠는 기증식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

김일성동지의 조작들은 그이의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책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제기로 당원들속에서 조선사상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 값높은 삶을 누리는 조선녀성들

### 국제 사회계가 찬탄

절세위인의 따뜻한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에 국제 사회계는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직업여성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잡지 『플래쉬』는 조선에는 여성종종의 법률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맑고 청진한 작업환경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터에 온갖 꽃이 만발해 갈수록 생산자들의 열의도 부쩍 높아져 질좋고 맵시있는 가방들이 끌없이 쏟아졌다.

꽃향기 넘쳐나는 일터, 이곳 가방직장의 일터에는 참으로 많은 꽃화분들이 있다.

향설란, 만수국, 제라늄, 줄법란, 꽃나리, 씨클라멘, 알스트로메리아, 아지어 암열대지방의 식물들인 레몬나무, 종려나무 등 수십여종에 수많은 꽃관목들이 들어찬 이곳은 마치 식물원을 련상시킨다. 하루이틀이나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던 나날부터 일터에서 꽃을 가꾸어오는 이곳 종업원들이 있다.

기자: 현재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일터에 있어서 꽃가꾸기는 순간도 떠여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랑만과 정서로 되고 있다. 활짝 편 꽃들에서 보다 좋아질 래일을 그려보며 신심과 래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일터를 찾으면 『화초가꾸기』라고 쓴 한권의 책을 볼 수 있다. 지난 기간 인민대학습당과 중앙식물원 등을 찾았거나 꽃가꾸기에 필요한 가지

본사기자 풍범식

절세위인의 따뜻한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에 국제 사회계는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직업여성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잡지 『플래쉬』는 조선에는 여성종종의 법률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녀성들은 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많은 일을 하였다. 조선에서 여성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정치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공업과 농업은 물론 조국보위와 교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러

것으로 하여 일터와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브리질문 『오라 도 뽀보』는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동반화를 가지고 주제에 차운다.

일찌기 여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여성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로 보장하는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해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조선여성들은 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많은 일을 하였다. 조선에서 여성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정치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공업과 농업은 물론 조국보위와 교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러

것으로 하여 일터와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쓰통신

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군시대에 와서도 많은 조선여성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들속에는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여성군인들도 있고 군관의 안해들도 있다.

이들과 함께 여성학자, 예술인, 체육인, 기자 등 각 계층의 수많은 여성들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제민주여성련맹 위원장은 조선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로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조선당과 정부는 여성들의 역할을 고도로 중시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브리질문 『오라 도 뽀보』는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동반화를 가지고 주제에 차운다.

일찌기 여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여성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로 보장하는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해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조선여성들은 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많은 일을 하였다. 조선에서 여성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정치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공업과 농업은 물론 조국보위와 교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러

것으로 하여 일터와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여성들을 혁명의 한족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력량으로 보고 끌끌이 민족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국제민주여성련맹 위원장은 조선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로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조선당과 정부는 여성들의 역할을 고도로 중시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정치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공업과 농업은 물론 조국보위와 교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러

것으로 하여 일터와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만약 사무라이후예들이 뉴턴 일본도를 꺼내들고 이땅에 또다시 기여한다면 우리는 선군의 보검을 높이 추켜들고 침략의 무리들을 삼대배듯 쓸어버릴 것이다.

《할아버지, 일본반동들의 협동행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에 단단히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흥분된 이야기를 듣느라 가슴속에서 더운 피가 세차게 끓어번졌다.

그렇다. 일본반동들은 자기들의 상대를 뚜렷히 알아야 한다. 우리 세대는 백인들의 불같은 항의와 차구에 정치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울릉도에 발

나는 온몸에 솟구치는 힘과 용기를 느끼며 전동차에 올라 일터로

## 백두산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은 조국의 북부에 거연히 솟아있어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백두산에서부터 우리 나라의 모든 산줄기들이 뻗어나왔고 금수강산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도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다. 백두산은 지금으로부터 2500만년전에 땅속에서 용암

분출이 진행되다가 100만~150만년전에 용암분출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때 형성된 화산이다. 처음 현무암질 용암이 밀려나와 기반암을 덮었고 그 후 알카리조면암질 용암이 터져나와 쌓아고쌓아서 종모양의 산이 생겨났다. 당시 백두산의 높이는 3200m나 되었다. 그 후 분

화구가 다시 터지면서 류동성이 강한 현무암질이 밀려나왔다. 용암은 골짜기를 메우며 흘러내리면서 세계적인 대현무암대지(백두옹암대지)를 이루어놓았다.

오랜 시기에 백두산은 강한 빙하작용을 받았다. 그 후에도 백두산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부석이 분출하였다.

## 인민의 기쁨 넘쳐나는 물놀이장



## 높은 천문학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별자리 유적

6cm정도이다. 각이한 크기의 훙구멍들이 많은 것은 100개 이상, 적은 것은 3~5개 새겨져 있다. 훙구멍들의 크기차이는 별의 밝기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늘의 별과 가운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며 또 지구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것과 먼 곳에 있는 것과 있어 지구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별들의 밝기가 서로 차이나는다.

이와 같이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웃면에 새겨져 있는 훙구멍들은 그 형태와 크기 및 개수로 보아 밤하늘의 별을 형상하여 새겨진 것이다. 고인돌무덤의 별자리들은 고구려석 각천문도를 기초로 하여 1395년에 제작된 《천상령차문지야도》에서 볼 수 있는 각수, 복수, 흑수, 거수, 성수, 장수, 익수, 삼수 등 적도와 달길주위에 놓여 있는 28수별자리들과 류사한

것이다.

단군조선시기 우리 선조들은 새긴 이 별자리와 같은 것은 5000년전의 다른 나라 고대 천문관계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고인돌무덤의 별자리들은 고구려석 각천문도를 기초로 하여 1395년에 제작된 《천상령차문지야도》에서 볼 수 있는 각수, 복수, 흑수, 거수, 성수, 장수, 익수, 삼수 등 적도와 달길주위에 놓여 있는 28수별자리들과 류사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단군조선시기 우리 선조들이 천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대의 천문학이 발전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것이다.

이밖에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는 은하수를 표시하거나 그 사이에 있는 견우별자리와 죄녀별자리를 표시한 것도 있다. 정동리 일대 고인돌무덤의 별자리들은 모두 30여개나 되는데 이것은 널중 끄고 지던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거의나 다 표시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단군조선시기 우리 선조들이 천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대의 천문학이 발전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미리우에 땅벌이 재글재글 내리쬐여도 시원한 물보라가 이는 여기는 무더운 여름철이면 너도나도 즐겨 찾는 물수풀들이 장이다.

읍계 비긴 철색무지개아래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고 나와 해빛조이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가하면 구명대 우에 앉아 손노를 저어가는 『쁘트』를 뒤집으며 좋아하는 꽃마다 수영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홍성인이다.

본사기자

## 명장과 폭포

예로부터 우리나라 명장들은 폭포옆에서 노래연습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최근 폭포옆에서 노래연습을 하면 발성도 잘되고 목소리도 쉬지 않는 등 여러 모로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떨어지는 폭포의 물방울들은 서로 부딪쳐 양이온으로 되고 이 과정에 떨어져나온 전자들은 폭포주변의 공기를 음이온으로 대전시키게 된다.

사람들은 대

다수가 오른손

잡아인 것 만큼 남녀가 모두 단추를 오른쪽에

에다는 것이 좋겠지만 단추를 반드시 남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고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사행동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린애를 키우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단추를 서

## 양복과 양복

기, 입술마름현상 등이 나타나며 분당 호흡량도 25ℓ이 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기중에 음이온이 많으면 호흡과 관련되는 시TokTok 통화호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호흡량을 크게 증명되었다. 떨어지는 폭포의 물방울들은 서로 부딪쳐 양이온으로 되고 이 과정에 떨어져나온 전자들은 폭포주변의 공기를 음이온으로 대전시키게 된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원리를 파악하고 호흡량을 증가시켜주는 음이온이 가장 좋고 습도가 높아 성호보호에도 좋은 폭포옆에서 노래연습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본사기자

양복이나 와이셔츠, 조끼 등 남녀가 다같이 입는 옷들은 단추가 오른쪽에 있는가 아니면 왼쪽에 있는가를 보고 남녀의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추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남자용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여자용이다.

사람들은 대

다수가 오른손

잡아인 것 만큼 남녀가 모두 단추를 오른쪽에

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아서 젖을 먹일 때 아버지를 위쪽으로 두게 되는데 이때 단추가 왼쪽에 있다.

그것은 군인들이 보통

여기 문수물놀이 장만이 아닌 만경대 물놀이 장, 통라도 수영장, 창광원 수영장 등 이르는 곳마다 수영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홍성인이다.

본사기자

## 남녀의 옷단추가 반대쪽에 있는 이유

서 칼을 꺼낼 때 옷깃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재빨리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 군복형식이 점차 양복으로 발전하면서 남성들의 옷단추방향이 오른쪽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여성들인 경우에는 단추를 무조건 왼쪽

본사기자

## 맥주의 맥로운 짹과 해로운 짹

이밖에도 맥주는 백내장과 심장 및 혈관질환에 방어에 도움이 되고 여성들의 생년기를 늘려준다고 한다.

◆ 맥주의 해로운 점

지금까지 맥주는 작은 노로 절삭을 해서 시키는 특효약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소에서는 호프속에 결석이 생기게 하는 요

또한 지방간의 위험도 있다.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에도 맥주는 좋지 않다. 통풍은 피속의 노산이 물밖으로 배설되

지 않고 결성이 되어 생기는 질환인데 이 결성이 질환으로는 한동하는 유린성분이 바로 맥주속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간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알콜량(몸무게 65~70kg의 남성)은 약 80g, 맥주는 2ℓ 정도라고 한다.

본사기자

맥주의 해로운 짹과 해로운 짹

## 《결별》, 《리별》, 《석별》, 《작별》

다같이 함께 있다가 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듯을 보면 《결별》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갈라지는 것 또는 서로 사귀던 사람끼리 교제나 인연을 끊고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리별》은 주로 오래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헤여지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작별》, 《석별》은 나쁜 감정으로 갈라질 때 쓰는 말로 《결별》보다 뜻독이 넓다.

《석별》은 섭섭하고 애

본사기자

## 더위를 막는 가지

가지는 삼복기간 더위를 막는데 가장 좋은 남새의 하나라고 한다.

가지는 고려시기인 1200년 경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으며 고려 후반기의 시인이었던 리규보(1168~1241)가 1241년 8월에 편찬한 《동국리상국집》에는 집에서 가지를 재배하여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먹는다는 내용의 시가 있다.

대체로 여름날에는 물을 차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지는 여름을 타거나 열이 많아 물이 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또한 출혈을 멎출뿐 아니라 피속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이는 작용과 리노작용을 하기 때문에 벼리를 예방하고 치질, 혈변, 부종, 횡痃,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증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타박상이나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땅동기나 땅었던 찬 가지를 상처부위에 붙이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그 후 군복형식이 점차 양복으로 바뀌면서 남성들의 옷단추방향이 오른쪽으로 굳어졌다.

대체로 여름날에는 물을 차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지는 여름을 타거나 열이 많아 물이 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 유모아 《풋병어리는 말을 합니다》

시풀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밤중에 되어 들어가 쉴 집을 찾았는데 순라군과 맞다들게 되었다.

순라군: 『이놈아, 병어리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시풀사람: 『네, 근래에 풋병어리는 말을 합니다.』

순라군: 『이게 병어리인 말이 좋다고 한다.』

본사기자

## 놋그릇의 살균효과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애용해온 놋그릇이 여름철 식중독과 콜레라를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는 특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브리오균은 여름철 생선이나 조개류에 들어있는 데 이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식중독과 폐열증

사람의 감정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 혈관질병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갑자기 성을 내면 얼굴이 칭백해지거나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혈관이 수축되었거나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경우에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 붉어지는 것을 볼 때는 혈관이 확장되었거나 혈관이 수축되었거나 혈관의 혈관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본사기자

평상시에 심장의 박동과 함께 를동으로 움직이던 혈관이 갑자기 이러한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안벽에 상

감정과 건강

처가 생기며 그 상처로 콜레스테린이나 섬유조직이 그 즉시에 침투한다.

감정이 격화될수록 혈압이 높아지므로 그 혈관에

내막의 상처속으로 콜레스테린과 같은 것들의 침투는 더 강해진다. 따라서 혈관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갑자기 홍분하여 성을 내거나 초조감과 우려감에 쌓여 안절부절 못하는 습관을 철저히 버리고 생활을 항상 청결적으로 여유 있게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 모성의 권리 (2)

글 김혜영, 그림 김윤일

절망과 공포가 육체적 아픔마저 놀려버렸다.

이때 문이 열리며 사색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사와 함께 들어섰다.

순간 어머니는 대형 실내에서 베란다에 걸친 화분에서 놀라울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가정들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면 놋그릇에 음식을 담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허나 운명의 장난이란 참을 놓았던 것이다.

어느 해 학교에서 원족을 갖던 봄날 『보물찾기』를 하느라 험한 벼랑우를 헤아리던 오시고가 그만 발을 디뎠던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벼랑밀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오시고는 가슴이 싫을 때 그의 머리에 팔, 다리에는 온통 봉대가 감겨 있었다.

(아, 난 이젠 병신이 되고 마는게 아닐까? 음악도 무용도 다 끝장이 나고 ...)

리사이의 물질이 문제입니다. 워낙 대퇴경부골절은 이부위의 해부생리학적 특성으로부터 잘 낫지 않으며 오래 동안 동반능력을 잃게 하거나 불가능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불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어머니의 놀란 소리였다. 『하지만 잘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든 다리를 완전히 자르거나 앓은 배이가 될 위험성은 없으니 마음놓으십시오. 지금 석고봉대로 고정한 것이 잘 불가능한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음놓으라구?》 오시고의 다리는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란 말이오! 무용을!』

아버지의 화풀이로 하듯 성나서 소리질렀다.

의사는 환자의 현 상태에서 무용의 가능성을 물었다.

『머리와 팔에 입은 타박상은 외상치료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겠지만 꿀반과 다

결국 그는 절름발이가 된 것이다.